

연변,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수확’ 풍성

온 · 오프라인 판매총액 236 만여원, 도서 판매 계약총액 3.1 억원

온 · 오프라인 판매총액 236 만여원, 도서 판매 계약총액 3.1 억원, 창고 출입고 계약총액 4.6 억원... 최근 막을 내린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이하 ‘도서박람회’)에서 연변지역 참가단위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도서박람회에서 연변은 600 평방미터의 전시구역에 1,480 종의 도서를 전시했으며 18 회의를 행사를 개최, 연 2 만명을 초과하는 관객을 맞이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세 출판사에서는 여러 대표적인 생방송 플랫폼에 3 개의 온라인 분회장을 개통했는데 약 30 만명의 온라인 방문자를 흡인하기도 했다.

다양한 품종의 전통 출판물에서부터 대모형 시대의 융합 출판, 소셜미디어 상호 교류형 메타버스 출판에 이르기까지 도서박람회에서 연변 전시구역은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등 3 개 단위에서 ‘전통’과 ‘신흥’ 전시품을 선보여 서로 다른 특색의 풍부한 출판 노력과 광활한 출판 비전을 보여줬다.

박람회 기간 연변교육출판사의 《50 개 핵심시험장》, 《시험 도우미》 및 《중국조선족민속문화집성》 등 서적, 《중국조선족민속문화집성》 책갈피, ‘컵속의 선물 · 민사행동’ 창작 선물세트와 ‘참언밀어’ 창작 선물세트가 박람회



참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연변인민출판사 전시구역에 전시된 핵심소양 계열 도서, 경전을 읽으며 두가지 언어 배우기 계열, 모순문학상 수상작품집 등 서적, 《중국조선족민속문화집성》 일기장 선물세트, 조선족 화가의 삽화를 프린트해 넣은 천가방, 개인 맞춤형 명찰 등

문화창의의 제품이 현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연변대학출판사에서 전시한 《장백산이야기문서》, 《갈림의 맛》 및 ‘등과길(登科路)’ 브랜드 교육보조도서가 주목을 받았고 ‘김윤현’ 문화창의의 계열 제품 등이 전시회 참가자들의 각광을 받았다.

문화교류의 새 창구, 산업 발전의 새 고지, 경제 진흥의 새 조류가 이곳에서 나타났다. 연변은 도서를 매개체로 벚을 사귀고 전시회로 상업 기회를 창출하는 등 신질생산력으로 문화산업의 번영에 에너지를 부여해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 연변일보

한광휘 연변팀 주장직 사임, 천창걸 새 주장으로



▲ 새로 연변팀 주장에 선임된 천창걸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21 일, 경기 기풍과 경기규율 관리사업 재등원대회를 소집하고 문화 건설 및 중국축구협회 경기기풍 경기규율 경시영상을 관람, 중국축구협회의 관련 요구를 전달했다. 이는 갑급리그 제 9라운드 부분적 경기에서 충돌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국축구협회가 각 프로 구단에 경기기풍과 경기규율 관련 재등원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집된 것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과 연변축구협회, 룡정시체육국 및 구단의 지도일군, 감독진과 선수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김봉길 감독은

사적인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연변룡정팀 주장이 전체 선수들을 대표하여 발언했는데 주장으로 나선 이는 한광휘가 아닌 천창걸이었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총경리 리광혁은 “한광휘가 중동적으로 주장직을 사임했다. 더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역시 한광휘의 의견을 존중해 천창걸을 새 주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988 년생으로 이제 만 36 세가 넘는 한광휘는 지난 시즌 연변룡정팀이 갑급리그 령정을 시작할 때부터

쑥 주장으로 뛰어왔다. 선수로서 황급기를 훨씬 넘긴 그는 지난 시즌이 끝난 후 “나이 원인도 있는 것 같고 공격에 가담했다가 유효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면 되돌아오기가 체력적으로 딸릴 때도 있었다. 또한 주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가지고 경기를 할 때도 있었고 마음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연변룡정팀의 새 주장 천창걸은 지난 시즌부터 대부분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강인하고도 근면한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 김파기자

리세빈 “승리로 홈장의 명예와 존엄 지키겠다”

25 일 오후 3 시, 연변룡정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강서려산팀과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1 라운드 홈장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 원정경기에서 강팀 운남옥곤팀에 1:5 로 참패한 연변룡정팀은 현재 순위 최하위에 놓인 강서려산팀을 상대로 홈장에서의 승리를 으버리고 있다.

24 일 오전에 있는 경기전 기자회견에 연변룡정팀 김봉길 감독과 리세빈선수가 참가하였다.

리세빈선수는 “지난 원정경기에서 큰 점수 차이로 패했지만 우리 팀은 한주간의 조정을 거쳤고 이번 경기에서 꼭 3 점을 쟁취하겠다. 승리로



홈장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길 감독은 “이번 주에 강서팀에 대비해 훈련을 아주 충분하게 했기에 래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했다.

/ 김파기자

고준익, 6 월 월드컵 예선 국가팀 명단에 발탁

중국축구협회는 22 일 오전, 2026 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36 강전 5, 6 라운드에 출전하는 중국국가남자축구팀(이하 ‘중국국가팀’) 명단을 발표했다. 현재 산동대산팀에서 뛰고 있는 고준익선수가 이번 명단에 발탁되었다.

중국국가팀은 5 월 27 일부터 6 월 12 일까지 룡녕성 심양시와 한국 서울시에서 집중 훈련 및 경기를 치르게 된다.

북경시간으로 6 월 6 일 20 시, 중국국가팀은 심양에서 아시아지역 예선 36 강전 타이틀과의 생사전을 펼친다.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36 강전 4



라운드후 중국국가팀은 2 승 1 무 1 패로 현재 조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이틀을 이기면 앞당겨 소조 진출을 선언할 수 있고 비기거나 지게 되면 최종 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한국과 결전을 치러야 하는 동시에 다른 팀의 경기 여부를 봐야 한다.

/ 김파기자

민속전통운동 후대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일전 연변대학 경영자과정학우회와 연변혁신경영자에협회 및 연변대학 경영자과정학우회 19 기 20 기 회장단과 회원들은 민속전통운동 후대 양성에 심혈을 불붓고 있는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를 찾아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는 지난 25 년간 민속전통씨름, 유도, 레슬링,

양궁 선수를 배출하여 연변 나이가 길림성을 대표하여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면서 당과 정부, 사회적인 공정을 받고 있는 운동선수 양성 요람이다. 당면 학교의 적지 않은 선수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리설봉 교장이 사회 지원과 사비로 체육구락부를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 정황을 료해한 연변대학 경영자과정학

우회는 지난 20 여년간 꾸준히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면서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 리설봉 교장은 “리덕봉 회장을 필두로 하는 연변대학 경영자과정학우회와 연변혁신경영자에협회의 다년간의 꾸준한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속전통운동 훈련에 전력을 다해 우수

한 성적으로 당과 정부, 사회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연변대학 경영자과정학우회 리덕봉 회장은 “민속전통운동 후대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향후에도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상근기자

전망대

10 라운드 무승의 늪에 빠진 강서려산 연변팀 홈장승 기회를 잡아라!

원정에서 강팀 운남옥곤에 1:5 로 참패를 당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이 25 일 오후 3 시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2024 시즌 제 11 라운드 경기를 강서려산팀과 펼쳐게 된다.

지난해 꼴찌로 을급리그에 강급되었다가 다른 팀들의 해산으로 갑급리그 참가 자격을 보류한 강서려산이 올해에도 성적 부진으로 순위 16 위에서 허덕이고 있다. 리그 1/3 일정 10라운드까지 지나간 가운데 2무8패, 팀의 역사상 가장 차한 성적이다.

지난 4 월 20 일 원정에서 룡녕철인에 1:2 로 패한 이후 강서려산은 4 라운드 패를 당하면서 당지 축구팬들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5 월 11 일 대련영박과의 경기 현장 관중수가 겨우 1,063 명이라는 수치가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전임 감독 리광의 감독진이 성적 부진 책임을 안고 전부 사직하고 물러나자 구락부에서는 4 월 22 일, 내몽골중우, 룡녕철인, 섬서장안, 북경인화, 단둥등약 등 중국축구 4 개 급별 리그 감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 갑급리그에 익숙한 왕파를 감독에 선임하고 나머지 경기를 지휘하게 하였다. 왕파는 인맥이 넓고 경력이 풍부하여 유명한 ‘소방대원’으로 불린다. 단둥등약 감독 경력도 있는 왕파는 강서려산에서 뛰고 있는 전 단둥등약팀 선수들과도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축구는 수학문제 풀이가 아니다. 그가 지휘한 대 청도홍사, 남경도시, 대련영박 경기에서 비록 부동한 진영 조합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전술 변화를 시도했지만 3 라운드를 면치 못했다. 인심이 흩어진 대우를 수습하기가 힘들다는 평가이다.

기전술 방면을 제치고 현재 강서려산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문제이다. 2023 시즌에 ‘강급되면 팀을 해산’한다는 풍파가 있었지만 련성집단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올해 2 천여만 원을 투입해 순위 10 위를 목표로 내 걸었다. 료해에 따르면 올 시즌 강서려산은 상금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축구팀보다 좀 높은 기본로임을 정했다. 이런 ‘찰밥통’ 모식은 비록 상세한 출근제도와 출전 차수 등 요구가 있지만 축구팀 내부에 모순을 조성하고 출전 해도 힘을 내지 않는 등 결과를 가져왔다. 간단한 감독 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몇년간 갑급권에서 배회하면서 중국축구의 흥망성쇠를 목격하고 눈물을 휘둘리며 축구권을 퇴출하고 해산한 팀들을 떠나보내면서도 묵묵히 견지하고 있는 강서려산의 끈질긴 축구에는 진귀한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락부는 여름철 이적시장을 리용하여 팀을 개편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구락부가 여전히 갑급리그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징이다.

하버턴 원정에서 치욕스런 참패를 당하고 홈장에 돌아온 연변팀에게는 기분이 엄청 상한 축구팬들을 달래줄 먹이감이 생긴 셈이다. 비록 왕박호가 U19 국가대표팀 집중훈련과 4 개국 초청경기에 참가하기에 청도홍사와의 원정경기까지 3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강서려산을 상대로 승전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구락부의 결심과 감독진의 전술체계, 선수들의 움직임이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난 운남옥곤과의 경기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이다.

/ 김태국기자



▲ 연변룡정팀 대 운남옥곤팀 경기의 한 장면

연길시중양소학교 연변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서 우승

2024 년 연변조선족자치주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소학조)가 나흘간의 경기를 치르고 19 일에 막을 내렸다. 연길시중양소학교 축구팀은 치열한 각축 끝에 6 점 6 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 학교 5 학년 2 반 리현도와 5 학년 1 반 김주형이 각각 최우수선수와 최우수키퍼에 선정됐다. 연길시공원소학교와 연길시연신소학교가 각각 2 등, 3 등을 차지했다.

16 일에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막한 2024 년 주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소학조)는 연길시중양소학교, 연길시공원소학교, 훈춘시제 1 소

학교, 룡정시실험소학교 등 14 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4 개 소조로 나누어 소조 단소환경기, 8 강 토대전으로 진행되었다.

주체육국, 주교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체육운동관리중심, 연변축구협회, 연변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연변 청소년축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축구발전 중점도시, 서부지역 체육과 교육 융합 축구유소년훈련시스템 시범 건설을 구축하며 완벽한 청소년축구육성시스템과 인재 제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 김파기자

백산시, 전력 다해 소수민족운동회 대비 훈련

길림성 제 8 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5 월 27 일부터 30 일까지 4 일간 백산시에서 성대히 펼쳐지게 된다.

길림성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와 성체육국, 백산시인민정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운동회는 그네, 널뛰기, 진주뿔, 제기차기, 사궁, 압가, 민족간신체조, 민족식씨름, 무술, 율놀이, 하르바(哈

鞭) 등 11 개 경기 종목외에 팽이, 널신 속도 경기(板鞋竞速), 전통활쏘기 등 3 개 표현종목도 펼쳐지게 된다.

이번 운동회에 백산시에서는 총 141 명의 운동선수가 참가하는데 지금 백산시체육국은 정력을 집중하여 모든 경기 종목의 훈련을 긴장하게 진행하고 있다.

/ 최창남